

박영자씨 무등여성대상 수상



박영자 전남대 간호대학 동창회장이 2008년 광주시 무등여성대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16회 광주여성대회'에서 열린다.

박 씨는 광주·전남지역 여성계의 리더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광주시 무등여성대상은 광주에 주소지를 둔 여성으로 지역사회에의 발전을 위해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혁신적으로 봉사한 여성에게 주어진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데뷔 40주년 정훈희 30년만에 음반



가수 정훈희(56)가 데뷔 40주년 기념 음반을 8일 출시했다. 이번 음반은 1978년 발매된 '꽃밭에서' 이후 30년 만의 독집이다. 1967년 '안개'로 데뷔한 것을 기념하는 음반이다.

'40th 애니버서리 셀럽레이션스(Anniversary celebrations) 정훈희'로 이름붙은 음반에는 타이틀곡 '빼빼코로랄라', 정훈희의 20대 아들 에릭이 피쳐링한 '러브 이즈(Love is)', 인순이와 두 옛한 '러브(No love)', 베를 시스터즈가 피쳐링한 '마이 뮤직(My music)' 등 신곡 8곡을 실었다.

또 '안개', '꽃밭에서', '그 사람 바보야' 등 히트곡 3곡을 재편곡했고, 오리지널 버전의 '무인도'와 작곡가 고(故)이영훈의 '사랑이 지나가면'까지 총 13곡을 담았다.

비틀스 링고 스타 생일맞아 평화기원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의 드럼 연주자였던 링고 스타가 시카고에서 68회 생일을 맞아 전 세계에 '평화와 사랑'을 기원했다.

7일(현지 시간) 시카고의 하드록 호텔 주변에 300여명의 팬들이 모여든 가운데 스타는 팬들을 향해 두 팔을 치켜세우며 '정오입니다. 평화와 사랑을!'이라 고 외쳤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페르트 피스' 베이커리는 300여개의 미니 캡케이크와 대형 케이크를 만들어 팬들과 스타의 생일을 축하했다.

여배우 니콜 키드먼 여아 순산



여배우 니콜 키드먼(41·사진)이 지난 7일 내슈빌에서 여아를 순산했다고 가수인 남편 케이드 어번의 공보비서가 밝혔다.

부모는 약 2.95kg의 신생아에게 선데이 로즈 키드만 어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키드먼은 최근 잡지 배너티 페어와의 회색에서 전 남편 톰 크루즈와 결혼 생활 중에 유산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유산 후에 2명을 입양했으며 그들은 현재 10대이다.

광주과기원 출신 첫 美 대학 교수 손아정 씨

“GIST는 연구의 즐거움 알게 해준 곳”

〈광주과기원〉



미 앤디애나 어번대 공채

200對1 경쟁률 뚫어

광주과학기술원 출신 첫 미국 대학 교수인 손아정(32)씨는 8일 광주를 방문, “광주과기원에서는 석사과정 2년을 거쳤을 뿐이지만 연구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곳이어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날 광주과기원에서 주최한 ‘나노 DNA 센서의 개발과 응용’ 세미나에 참석해 초청 강연을 가졌다. 오는 10일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광주과기원 환경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손씨는 미국 멜라워어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은 중 교수 채용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손씨는 오는 8월부터 앨라배마주 공립대인 어번(Auburn)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경쟁률이 200대1을 넘기 때문에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3명이 남게 된 인터뷰

절차까지 밟고난 뒤에야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손씨는 전공이 환경공학의 새로운 분야여서 핀드를 보다 쉽게 끌어올 수 있다는 점, 아시아인이나 여자인 점 등이 교수 채용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손씨는 환경미생물학, 환경나노기술 등을 전공했다.

손씨가 교수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교수자리를 알아본 것은 지난해 말. 한국의 대학에서는 전공을 세분화해 교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지원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교수가 쉽지 않은 직업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더 진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은사들의 조언을 따랐죠.”

강연자 한국을 찾은 손씨는 10일 출국, 오는 8월 16일 첫 강의를 갖는다. 그는 “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수업시간에 많은 질문을 쏟아낸다”며 “연구원 신분으로 있을 때 종종 강의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첫 강의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화순전남대병원 ‘고객감동 안내 프로젝트’ 발대식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실장 권동숙 교수)은 지난 7일 ‘고객감동 안내 프로젝트’ 발대식을 갖고 환자들이 최단시간에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한전 전남본부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본부장 김귀중)는 8일 광주 광천터미널과 여수 서교시장 주변 등 광주·전남지역 36곳에서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한전 전남본부 제공〉

현대백화점 북구청에 쌀 147포대 전달



황해연(왼쪽에서 세번째) 현대백화점 광주점장은 8일 광주시 북구청을 방문, 송광운 북구청장에게 20kg짜리 147포대를 전달했다. 이 쌀은 현대 광주점이 그린바자를 운영해 조성한 기금으로 구입했다.

담양 박순애씨 ‘엿강정’ 명인 됐다



다음 생강 등을
첨가한 조청과 버무려 제조한 전통
식품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박대표는 특히
1997년 시설현대화
를 통해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에 머물던 전통한과 생산
공장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지난해에
만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필기자 bungy@kwangju.co.kr

전통식품 계승 공로

고독창적인 엿강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박대표를 제33호 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가문에 전승되어 온 한과 제조 기법과 날도 전통의례 음식의 기능을 전수 받아 30여년동안 이를 발전시켜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엿강정은 한과의 일종으로 쌀·콩·깨·잣·평콩 등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해 볶은

‘모의 UN대회’ 대상에 조선대 강대훈·박지웅씨



55개 대학 442명 참가



존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 분쟁에 관한 감시체계와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지역적 군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이런 일들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씨와 박씨 등 6개 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은 8명은 부상으로 올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관련회의를 참관하는 기회를 갖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방

▲강경수씨(광주은행 상근 감사위원)

로 한 6개 위원회에서 정해진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 자국의 이의과 세계 평화를 위해 회의를 가졌다.

대상을 받은 강씨와 박씨는 43개 학교 86명이 토론자로 참가한 제5위원회에 우간다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씨는 “아프리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

동강대학 산학 협력 협약식 체결



동강대학은 지난 7일 새마을행정고시학원과 산학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정보 제공 및 공유, 대학교육 참여, 산업체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강대학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알림

▲조병현씨 장남 영민군 정종해(보성군수)씨 장녀 수진양=12일(토) 낮 1시 서울 명동성당 성전.

▲기노획(광주 정암초 교장)씨 장남 대웅(목포해양경찰서)군 박범호 씨 장녀 현주양=12일(토) 낮 12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9회 동창회(회장 장무성) 월례회=9일(수)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062-655-3688.

동창회

▲문화류씨 하정공파(회장 류수영) 모임=10일(목) 오후 7시 다미. 062-222-3335.

여배우 니콜 키드먼 여아 순산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경·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 정 지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모집

▲대법률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려는 선생님, 오자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서강고 운동장. 모집=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 www.gjsad.or.kr, 062-384-5544.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지도자 양성 모집=온라인으로 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놀이기구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 단=온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복·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봄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봉사단 모집=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 www.gjsad.or.kr, 062-384-5544.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족 노래교실 ‘참고운소리’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족을 사랑하는 남녀. 062-572-0129.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부음

<p